

# 광주시 '자기부상열차' 유치 전력

市, 6월 본 제안서 제출 용역 착수

3,710억원 사업 80%가 국비지원

광주시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지난 달 건교부에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 선정 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조만간 오는 6월 본 제안서 제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27.4km 중 7km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노선은 상무역~시청역~터미널, 효현역~광주대~백운동~남광주역

등 2개 구간 중 하나를 택할 예정이다.

시는 효현역 구간이 확정되면 장기적으로 나주에 조성중인 혁신도시와 연결하는 방안을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유치를 위해 2호선 전 구간 27.4km에 자기부상열차를 건설하고, 시범노선 착공에 맞춰 2호선 공사도 들어간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정부의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공모에는 광주와 대구, 대전, 인천, 창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했다.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은 시간당 11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연장 5~7km 이내의 구간에 설치되며 유치가 확정되면 전체 건설비 3천710억원 중 80% 정도가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제안서 제출을 ▲광주 도시철도 1호선에 국내 최초로 100% 국산화한 한국형 표준 전동차를 도입했으며 ▲광주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빛의 축제, 광전시회 등 세계적인 행사 개최시 관광효과가 뛰어나고 ▲

자기부상열차 노선에 LED시설을 가미해 도심의 명물로 삼겠다는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는 자기부상 시스템은 최고 20%

에 이르는 건설·운영 비용 절감은 물론 저소음과 대기오염 저감 등 친환경 시스템, 주민민원 해결, 관광자원화 등 과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 시스템으로 결정되면 당초 2호선 완공시기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최초와 세계 2번째 상용화에 따른 관광 자원화도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거친 뒤 6월 말 시범도시를 선정한다. 2009년 착공해 2012년 완공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세계에서 가장 큰 책 '부탄'

12일 서울 잠실 삼성아리아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전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책 '부탄' : 히말라야 마지막 왕국의 사진 오디세이'를 바라보고 있다. 크기는 가로 2.1m 세로 1.5m, 무게는 50kg이다.

/연합뉴스

## 광양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부진'

작년 1,920만달러… 中 푸둥 56억달러와 대조적

상의 "투자여건 열악·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

한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조성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국내 3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부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광양, 인천, 부산·진해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구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가 부진한데 대해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반면에 1990년부터 개발된 푸둥지구는 첫해 외자유치 규모가 3천만 달러에 그쳤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에는 56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건수는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 16건 등 모두 34건에 그쳐 푸둥지구가 개발 초기 5년(1990~1994년)간 유치한 2천646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가 부진한데 대해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직장인 절반이상

"16분간 낮잠"

직장인 절반이 이상이 회사에서 낮잠을 즐기며 평균 수면시간은 16분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셀리온(www.saramin.co.kr)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 폴리버(www.pollever.com)와 함께 직장인 2천149명을 상대로 회사에서 낮잠을 자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1.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낮잠시간은 16.2분이었으며 20분 가량 낮잠을 즐긴다는 대답이 29.5%, 10분(29.2%), 15분(18.5%), 30분 이상(7.9%), 25분(7.5%), 5분(7.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고구려연구회 세미나 개최

"고구려 시조의 이름은 주몽(朱蒙)이 아니라 추모(鄒牟)다", "삼족오(三足鳥)는 고구려 국가나 상징이 될 수 없다."

MBC의 '주몽', SBS의 '연개소문', KBS의 '대조영', 최근 동시에 방영된 고구려와 밤해를 소재로 한 역사드라마 속에서 사실과 허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고구려연구회는 드라마 속 고구려와 밤해의 역사를 고증하기 위해 19일 서울역 앞 대우학술재단

### “주몽은 추모를 비하한 말

〈朱蒙〉 〈鄒牟〉

### 삼족오 고구려 상징 아니다"

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역사와 고구려 드라마'를 주제로 발표한 서경대 서길수 교수는 "주몽(朱蒙)은 추모(鄒牟)의 중국식 표기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글자를 빌려 써 추모를 비하였다"고 지적했다.

414년에 세워진 고구려 광개토 대왕비와 5세기 중엽의 고구려 모두루무덤에는 고구려의 시조를 추모로 표기했지만 6세기 중엽 이후 편찬된 위서(魏書)·주서(周書)·북사(北史)·수서(隋書) 등에서는 주몽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

서 교수는 "주(朱)"자는 '난쟁이'

(侏)라는 뜻이 있고 '몽(蒙)'자는 '속이다'·'어리석다'는 뜻으로 고구려의 시조를 '어리석은 난쟁이'로 평화한 작명(作名)"이라며 "일본의 창씨개명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또 "드라마에서 삼족오가 고구려의 상징이나 국가처럼 사용됐지만 후기 고구려 벽화를 보면 고구려의 최고 상징으로 등장한 것은 해(마끼야)나 달(두꺼비·토끼)이 아닌 청룡·백호·현무·주작 등 4신들"이라고 주장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온·오프라인

- 김종우



3년전 '탄핵'이 생각나는 즈음에...

## 1,700만원 '귀족여행상품' 봇물

국내 대형여행사 일제 출시

최근 일부 부유계층을 중심으로 명품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1천만원대를 훌쩍 넘는 최고급 해외여행 패키지를 쏟아놓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국내 대형 여행사들은 소비 수준 양극화에 따른 마케팅 다각화 차원에서 명품 해외여행 패키지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올초에 1천만원대가 넘는 최고급 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그동안 이들 대형 여행사가 간헐적으로 1천만원에 육박하거나

조금 넘는 수준의 해외 여행 상품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고가 상품이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롯데관광이 출시한 '30일 간의 세계일주' 상품은 1인당 가격이 무려 1천690만원으로 20만 원짜리 저가 중국 상품보다 무려 80배 이상 비싸다.

모두투어도 명품 여행상품만 전담하는 주얼리 모드 사업부를 통해 최근 1천329만원짜리 '프랑스 예술기행 10일' 패키지를 내놓았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 또한 1천140만원짜리 '지중해 크루즈 12일' 상품을 출시해 현재 고객을 모집 중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동구의회(의장 조영복)와 문화중심도시조성 광주 동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영수)는 12일 오전 박양우 광주부 차관의 '문화의 전당 설계변경 불기' 발언과 관련, 긴급 성명을 각각 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각본대로 진행돼온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계획을 정당화하는 최후통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하 전당 건설을 중단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동구비대위도 "건축가의 자존심은 중시하면서도 지역민의 정서는 외면하는 문광부 몇몇 고위공직자의 인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5개 구의회 내에도 문화수도특위를 구성, 시의회와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부 '문화전당 설계변경 불기' 발언

## 동구의회·비대위 "강력 대응"

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동구비대위도 "건축가의 자존심은 중시하면서도 지역민의 정서는 외면하는 문광부 몇몇 고위공직자의 인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5개 구의회 내에도 문화수도특위를 구성, 시의회와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전남도지사

전남, AI 간이검사 '음성'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남 천안의 종오리 농장에서 부화 오리를 공급받은 전남도내 9개 시·군 14개 농장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축산기술연구소가 도내 14개 농장에 반입된 오리 14만3800마리에 대한 체질 및 분변 간이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결산공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光州日報 광고국

전화 : (010) 602-227-9600

FAX : 062-227-9500

E-mail : dd8111@hanmail.net

문실

글포트원증

No.J01500881

광주C.C

전용판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

공고한

화물자동차 전문매매

박기수 011-602-7494

한국민족문화재단

한국민족문화